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인쇄업계의 낭보(?)

1962년 12월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게재됐다. 인쇄 물량이 점진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때와 맞물려 사진 제판 기술력이 업체의 전반적인 수준으로 가늠되던 시기.

'인쇄업계의 낭보'라는 문구로 개재된 이 광고는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연마기와 사진 감광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업체(제일화학약품상사)는 당시 사진 제판기 및 인쇄 약품 인쇄재료를 취급하고 있었으며 평판 및 오목, 블록판을 이용한 토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 등 유럽의 제판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듯 벨기에의 게바트 제판기를 직수입한 총판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국내 제조업체의 사진 제판에 대한 기술력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당시 이 업체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본 국내 인쇄업계

1960년대 후반 국내 인쇄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1967년 12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외국인 눈을 통해 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개재하며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인쇄업의 개선점'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고급 기술 인력의 부재'가 1위로 조사됐으며 무분별한 덩핑, 인쇄물의 질적 저하, 관련 학과 증설 등 순이 그 뒤를 이었다. 시보는 국내 인쇄업이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쇄업에 대한 열의 및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만한 인쇄 현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보는 전자 제판기 등 고급 기종이 국내에 도입,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이 채용을 극히 제한해 넘쳐나는 인력들은 갈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젊은 기술 인력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찾아보면 막상 갈 곳이 없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요·공급 곡선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인쇄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TV 버튼으로 신문 인쇄를?

'아침에 일어나서 TV 버튼만 누르면 읽고 싶은 주간신문이 인쇄'

1972년 12월1일자에 발행된 인쇄문화시보는 신문이라면 '배달 소년'이 연상되는 신문제작, 배달 방법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시바 전기회사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보에 따르면 전송 신문의 실용화를 위해 아사히 신문사는 자매지인 '이브닝 뉴스'를 동경 본사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호텔에 전송해 곧바로 인

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했다는 것. 이 서비스는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영자지로 70매 정도 분량이 전송, 공급됐다. 이는 아사히신문이 신문 제작에 투입되는 엄청난 제작·인건비로 인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서였다. 호텔에 비치됐던 전송 수상기는 AT형, 사진 전송 원리는 팩시밀리를 응용한 영상시스템 방식이 적용됐다. 시보는 이에 대해 세계 신문 역사상 획기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높이 평가하며 신문 인쇄 기술의 다변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 식자기 새 바람

어떠 인쇄 기법에도 적용가능한 사진 식자기가 영국에서 개발됐다. 인쇄문화시보(1974년 12월1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식자기는 영국의 리노 타이프사가 개발했으며 각종 크기의 활자(56포인트)를 1분간 150행(12포인트)까지 식자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된 식자기와는 다르게 주변 기기와 데이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보강했다. 시보는 종이 용지의 크기 및 두께, 재질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식자가 가능한 사진 부문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계기가 됐다고 전했으며 국내 수입원에 의해 조만간 국내에도 도입 및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사진 식자기는 수용할 수 있는 업체들의 수준에 맞춰 중저가로 제작됐으며 상용문자가 공급됐다.



신개념 제판 방식

제판 방식에서 카메라가 필요치 않게 됐다.

1976년 12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카메라가 필요 없는 제판 방식이 일본에서 개발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에서 제판 부문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문선당에 의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오프셋용 필름을 만드는 문자 시스템 방식에서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는다. 즉, 렌즈가 없는 제판이 가능하다. 시보는 종래의 제판 방식과는 아주 다른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신개념의 조판 방식이라고 평했다. '다이콤비존 시스템'이라고 명명된 이 제판 방식은 오세(OCE) A필름에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제판이 가능하다. 종래에는 네가 필름을 찍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오페규 수정을 거쳐 밀착 반전 시킨 후 최종 포지를 만들었다. 시보는 국내 제판 기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밝은 실내에서도 취급 할 수 있어 작업 공간 및 환경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0년대 인쇄업계는?

유신헌법 등 정치적인 악재 속에서도 인쇄업은 끊임없이 발전했다.

1979년 12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정치, 문화, 경제의 흐름에 비해 1970년대 인쇄업을 조명했다. '격류 속에서도 안정 찾아 몸부림친 10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기사를 통해 시보는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한 인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인

쇄 기기들이 고속, 다색화되면서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시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인쇄물 수출실적이 41만5천달러를 넘겼고 백상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도 등장하는 등 양·질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또 신문 인쇄용 오프셋 운전기가 조선일보사에 처음으로 도입 가능됐고 중국의 인쇄인 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해 인쇄업계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려 인쇄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992년 12월4일자 인쇄신문은 한 해 인쇄업계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일들을 게재하며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을 의미 있게 다뤘다.

개관식이 열린 흥덕사지터는 1984년 택지 조성 사업을 하던 중에 발견됐으며 1985년에 발족한 발굴조사팀이 불교 서적 등 각종 유물을 출토하면서 복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문화부는 이 유적지를 사적 제315호로 지정하고 1만4천여평의 부지에 42억원의 재원을 들여 공사에 착공했다. 흥덕사지의 복원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절터의 초석 위에는 고려시대의 부석사무랑수전을 본뜬 주심포 양식의 금당이 복원됐다. 그 아래에는 둥근 곡선 형태의 초기지붕 건물이 완공됐는데 이 건물이 바로 고인쇄박물관이었다.

신문은 발굴 당시의 유물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 고

육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호평했으며 경국대전 발견 및 아파트형 인쇄공장 가동에 대해 기술하며 당시에 큰 이슈를 뿌렸던 일련의 상황들을 한데 모아 보도했다.

카탈로그 특수지 출시

특수지 전문 개발업체인 한솔파텍에 의해 카탈로그 표지용 특수지가 개발됐다.

1994년 12월2일자로 발행된 인쇄신문에 따르면 이 특수지는 털이 종이에 들어 있다고 해서 '혼모지'라고 불렸으며 착색된 목재 섬유를 물속에서 혼합해 탈수시킬 때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제조한 것이다. 이 특수지의 가장 큰 특징은 착색된 섬유의 종류에 따라 풍기는 맛이 다양하게 연출된다는 것. 예를 들면 해초, 나무부스러기, 합성 섬유 등을 혼합하면 특이한 종이 맛 탄생하는 것이다. 한솔파텍은 이 특수지 개발을 위해 한솔제지 기술 연구소와 공동으로 6개월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신문은 이 특수지 개발로 인해 연간 6백톤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팬시용 인쇄물의 고급·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5억원 정도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저변확대가 기대 된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지 부문의 신기술이라고 호평했다.

(정리: 장홍일 기자)